

제 18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일시 : 1977. 10. 24 ~ 26

장소 : 경기도수원공설운동장

출연종목

1. 영덕탈굿
2. 청도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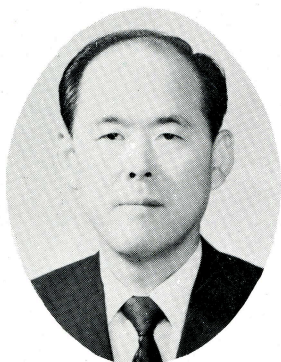
주최 : 문화공보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 경기도·예총 경기도지부

경상북도

인사말씀



청자빛 하늘아래 풍년을
구가하는 기름진 산야에는
들국화 유난히 향기로운 오
늘, 열여덟번째로 맞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온겨레
의 갈채속에 그 화려한 막을
올려 선인들의 예지를 전승
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민
속예술을 창조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소박한 생활정서속에서 움
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겨레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민족정기의 원천으로 줄기차게 이어온 고유의 전통
예술입니다.

선조의 얼이 스미고 슬기가 넘치는 값진 문화유
산을 찾아내고 소중히 간직하며 정성스럽게 갈고 닦
아 더욱 빛내어 보고자 여기 향토경북의 자랑인 탈
굿과 농요를 선보입니다. “영덕탈굿”은 동해안 영
덕 지방에서 어민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별신굿을할
때 한바탕 놀아나는 가면극으로서 익살스러운 풍자
속에 서민생활의 애환을 그리고 있으며 “청도농요”
는 이 고장 농민들이 민요의 흥겨움에 고달픔을 물
리치고 농사의 능률을 올리며 서로 협동하는 슬기
로운 농촌생활의 단면을 엿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뜻깊은 민족의 제전이 겨레의 가슴
마다 향토와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어주고
번영과 통일에의 굳센 의지를 일깨우는 동시에 우
리의 민족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계기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에
게 500만 도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1977년 10월 일

경상북도지사 김 수 학

영 덕 탈 굿 (가면희)



해설 : 탈굿은 경북 영덕해안 지방에서 무당들이 벌신 굿을 할때 노는 일종의 가면희이다. 이 탈굿은 내륙 안동 하회가면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영덕에 있다는 것과 하회가면극과 탈굿이 공히 벌신굿에서 연희되었다는 것이 우선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가면극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과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양반과 처첩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단막이란 점이 아쉽다.

1. 내용면에서보면 : 고성탈춤의〈제밀지(小母)마당〉과 유사하나

- ① 말뚝역에 해당하는 역은 양반의〈두아들〉로
- ② 남무역은 무녀로하고, 의원이 1명 더 등장한다.
- ③ 마무리 과정에서 할미가 죽어 상여가 나가는 장면을 영감이 가사하였다가 무녀의 굿에 의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되어 굿의 효능을 들어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 가면극에서보면 : 한가면을 영구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만들어 썼다가 굿이 끝난다음 잡물 일절과 함께 소각해 버린다. 때문에 만들기 쉬운지가면을 이용하게 되어 가면의 조잡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어떻든 금번 탈굿의 출현은 가면극계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으며 현전 가면극에도 무적인 요소가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가면극 연구에 일조가 되리라 믿어 사계에 공개하는 바이다.

출 연 자 : 영덕군 영해면

안 동 숙 외 14명

청도 농요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해설 : 청도는 본래 부족국가시대 이서소국(伊西小國)의 옛 땅으로 풍속은 검약 솔직한 것을 숭상하던 고을이며, 차산리는 1리 56호, 2리 97호 도합 153호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큰 부락이다. 그리고 씨족구성은 김영김씨 및 밀양박씨 동래정씨가 중심이 되어있다.

동리앞 동편에 차산들 서편에 청도 3대곡창인 “흑석들”을 끼고 있으며 농사짓기에 호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가마다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차산리 사람으로 자랑할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인간 상록수 홍영매여사와 씨름계의 장사 하동원씨와 농악의 명수 김오동씨라고 답한다. 농업수단의 기계화 노동연령층의 세대 교체와 문화생활의 변화등으로 지난날의 농요가 거의 사라지고 현대 유행가가 불리워지는 요즘에도 차산리에서 만든 겨울에는 농악이 여름에는 모심기와 논매기 가을에는 타작 노래등이 흥겨웁게 울려 퍼진다.

이처럼 차산리에 농요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팽과리명수 김오동씨와 같은 위인이 있고 이를 중심한 동민들의 협동이 있기 때문이다. 팽과리 소리만 나면 순식간에 동네골목에서 풍물을 들고 모여든다. 이처럼 그들은 농악과 민요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 고장은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북부 지방의 농요와는 다른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 차산리의 농요를 선 보이하고자 한다.

출 연 자 : 청도군 풍각면

김 오 동 외 24명



조사발굴 : 계명대학 최정여 교수
영남대학교 김택규 교수

청도농요

□ 모심기 노래 □

1. 바다야 같은 이뭇자리 장기관 만큼 남았구나
후렴 : 장기관은 좋다마는 돌이가 없어 못 놀겠네
2. 모야 모야 노란모야 너 언제 커서 열매 열네
후렴 : 이달크고 훗달크고 구시월에 열매열지
3. 이산저산 양산중에 울고가는 두견새야
후렴 : 거리봉산 어데두고 야산에서 슬피우노
4. 이논 뱀이 모를심어 잎이피어 장할래라
후렴 :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어 정자로다
5.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후렴 : 방긋방실 웃는아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6. 오늘해가 다졌는가 산골마다 연기나네
후렴 : 우리야 부모님 어데가고 연기낼줄 왜모르노

□ 논매기 노래 □

1. 논을 매는 농부들아 에이오홍 오홍에야
2. 오뉴월 삼복더위 " "
3. 구슬같은 땀을 흘려 " "
4. 목은 말라 타는 같고 " "
5. 배는 고파 등에 붙고 " "
6. 허리아파 못하겠네 " "

□ 보리 타작 □

- | | | | |
|---------|---------|----------|---------|
| 우리 농부 | 후렴 : 애화 | 이 보리가 | 후렴 : 애화 |
| 들어 보소 | " | 무슨 보린고 | " |
| 이 보리가 | " | 개구리 보린가 | " |
| 무슨 보린고 | " | 폴짝 폴짝 | " |
| 양반에 보린가 | " | 뛰기만 한다 | " |
| 수염도 길다 | " | 이 보리가 | " |
| 이 보리가 | " | 쪽찌비 보린고 | " |
| 무슨 보린고 | " | 보리짚 속에 | " |
| 상놈에 보린가 | " | 살살 숨기만한다 | " |
| 수염도 짧다 | " | 끝까지 때리소 | " |
| | | 곶배기 때리소 | " |

뿌리내린 10월유신

꽃피워서 번영찾자

500만의 총화

새마을로 소득증대

● 10월은 문화의 달

● 10월20일은 문화의 날